도내 교사 10명중 1명 '기간제 교사'

전체 초중고 교사 6546명중 기간제 교사 624명
정규직 교사 담임회피에 절반이상은 담임 맡아

제주도내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 10명 중 1명은 '기간제 교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절반 이상이 정규직 교사 대신에 담임 업무를 떠안 듯 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구 갑)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아 1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1일 기준 제주지역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는 모두 6546명인데, 이 중 10.5%(624명)가 기간제였다. 2015년 같은 달 9.6%였던 기간제 교사의 비율이 0.9%p 늘어난 것이다. 도내 학교 담임 중 기간제 교사의 비율도 2015년 8.0%에서 올해 10.3%로 증가했다.

기간제 교사의 절반 이상은 담임을 맡고 있었다. 도내 전체 기간제 교사 중 담임을 맡은 교사의 비율은 2015년 43.5%에서 2016년 38.3%, 2017년 46.8%, 2018년 44.8%로 증감을 보이다 올해 54.6%로 크게 늘었다. 2015년과 비교하면 11.1%p 상승했다. 전국 평균 기간제 교사의 담임교사 비율(49.9%)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기간제 교사의 담임 비율이 늘어나는 데는 정규직 교사들의 담임 업무 회피 등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학생들의 진로상담과 책임을 져야 하는 정규직 교사들이 담임교사, 학생지도 등을 기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상황에선 재계약 여부에 민감한 기간제 교사들이 담임교사의 책임까지 떠안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박찬대 의원은 "아이들의 미래를 설계하는 책무를 가진 담임업무를 임용고시를 합격한 정규직 교사가 회피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고용 불안에 맞서고 있는 기간제 교사들에게 책임까지 떠넘기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제주토종돼지 맛 비밀 풀렸다

11개 기관 공동연구
"근내 지방 함량과 적색육 3배 이상 ⬆"

제주 재래돼지고기 맛 비밀이 풀렸다.

농촌진흥청은 제주재래돼지의 고기 맛에 관여하는 유전자를 찾았다고 13일 밝혔다.

정부 혁신의 하나로 추진한 이번 연구에는 스웨덴 국립농업과학대학과 제주대학교 등 국내외 11개 기관이 참여했다.

분석 결과 제주재래돼지에서 찾은 육질유전자(변이-MYH3)를 보유한 돼지는 근내 지방 함량과 적색육이 일반 돼지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MYH3는 근섬유 조성에 관여하는 유전자로서, 적색근섬유가 많아지면 고기맛 관련 육질형질은 좋아지나 상대적으로 백색근섬유가 적어져 고기양이 적어지는 특성이 있다.

육질유전자는 돼지의 MYH3 유전자의 염기서열을 분석했을 때 프로모터 영역에서 6개의 염기결손이 있는 변이 유전자를 말한다.

돼지의 MYH3유전자 프로모터 영역에서 6개 염기서열의 결손 유무를 판단해 육질을 진단하는 원리로, 이 기술은 국내 특허등록을 완료했다. 일본 특허등록도 마쳤으며 중국과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에서는 특허등록 심사가 진행 중이라고 농촌진흥청은 설명했다.

상업용 돼지 육질 간이진단 키트는 올해 초부터 판매되고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양병철 난지축산연구소장은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난축맛돈'의 꾸준한 개량과 산업화를 통해 세계적인 품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농촌진흥청은 앞서 제주재래돼지의 육질유전자(변이-MYH3)를 가진 '난축맛돈'을 개발했다. '난축맛돈'은 제주재래돼지와 랜드레이스 개량종(한라랜드)을 교배한 품종으로, 뛰어난 육질(변이-MYH3)과 검은털색(KIT)을 결정하는 핵심 유전자를 고정했다. 저지방 부위(등심, 앞다리살 등)의 육질이 좋아져 전 부위를 구이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

조상윤기자 sycho@ihalla.com

"제주혈액원 직원 1/3 이상 다단계 부업"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적십자사 운영규정 어겨"

제주혈액원 직원 1/3 이상이 다단계 판매원으로 가입되어 부업을 했지만 '영리업무 겸직'으로 처벌받은 사람은 단 1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비례대표)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제주혈액원 특정감사결과'를 분석한 것에 따르면 제주혈액원 직원 36명 중 본인 또는 배우자가 다단계 판매원으로 등록돼 영리활동을 했던 사람은 총 1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단계 판매원 등록은 적십자사의 직원 운영 규정을 어긴 행위다. 대한적십자사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직원은 다단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최 의원은 "다단계 판매에 가입된 직원 13명은 1년 4개월 동안 총 246회, 5100만원의 물품을 판매했고 이 기간 총 6000여만원의 수당이 발생했으나 직원들이 판매해 만든 수익보다 하위판매원의 실적에 따라 배당받는 후원수당이 2배가량 많은 400만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다단계 판매에 가입된 현황을 살펴보면 짧게는 3년, 길게는 13년인 직원도 있었다. 직원들은 하위판매원의 수익이 자신에 귀속되는지 몰랐다고 항변했고, 적십자사 감사팀은 그 모든 진술을 받아드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영리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고 내부 직원들에게 물품 구입을 권유했는지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최도자 의원은 "혈액관리에 한시도 소홀해서는 안되는 혈액원에서 다단계 판매가 성행했다"고 지적하며 "공직기강이 무너졌는데도 부실감사로 처벌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실한 내부징계를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가을바람과 코스모스 화창한 가을 날씨를 보인 13일 제주시 한경면 금등리 도로변에 가을의 상징인 코스모스가 파란하늘 아래서 바람에 흔들리고 있다. 강희만기자

도내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부족'

초중고 배치율 15%… 전국평균 44%

제주도내 학교도서관 10곳 중 8곳 이상이 전담인력이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여영국(정의당·창원시 성산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준 도내 학교 191곳에 모두 학교도서관이 설치돼 있지만 사서교사는 29명 배치되는 데 그쳤다. 학교수 대비 전담인력 배치율이 15.2%에 머물며 전국 평균(44.4%)을 크게 밑돌았다.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배치율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광주가 93.1%로 가장 높았고 서울 81.5%, 경기 78.6% 등의 순이었다. 제주는 경북(9.4%)과 전남·충남(10.3%), 전북(10.7%) 다음으로 학교도서관 전담인력이 적은 곳에 들었다.

현행 학교도서관 지원법 시행령을 보면 학교도서관에 두는 사서교사·실기교사나 사서의 정원이 학교 당 1명 이상으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공무원 정원과 예산 문제 등으로 법정 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영국 의원은 "학교도서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독서교육과 도서관을 활용한 학교활동을 지원할 전담인력 배치는 필수"라면서 "이를 확대하기 위한 정부와 각 지자체의 지원과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중고교 교사 160명 선발

제주도교육청은 '2020학년도 공립 중등학교 교사, 비교과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을 지난 11일 공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선발 인원은 국어, 영어, 수학, 음악, 미술, 체육 등 교과교사 114명을 비롯해 보건, 사서, 전문상담, 영양, 특수(중등) 등 비교과교사 46명이다. 이 중 13명은 장애인 구분모집으로 선발한다.

김지은기자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영 사랑으로